

전남도, 임시정부 107주년 기념식...“보훈의 정의 실현”

무안 항일독립운동기념탑서 개최...광복회원 등 150여명 참석 임시헌장 낭독·독립군가 제창...선열 정신 계승 의미 되새겨

전남도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자주독립 정신 계승 의지를 공식화했다. 전남도는 최근 무안 삼황을 항일독립운동기념탑에서 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열고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와 범동을 되새겼다. 광복회 전남도지사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오직, 한없이 아름다운 나라’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송인정 광복회 전남도지부장, 김남용 전남서부보훈지청장, 보

훈단체장, 도의원, 광복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임시헌장 선포문 낭독, 약사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독립군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을 광복회 회원의 손자녀가 직접 낭독하며 임시정부의 첫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순천시시니어모텔협회는 기념공연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투쟁과 광복 염원

을 퍼포먼스로 표현하며 행사 의미를 더했다. 황기연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뿌리에는 의항 호남의 헌신이 있었다”며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의 가치를 이어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유가족을 끝까지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제강점기 분산돼 있던 임시정부를 통합해 27년간 독립운동의 중심점 역할을 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다. 정부는 임시정부의 범동을 계승한 국가 정체성을 기리기 위해 1919년 4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전남 항일독립운동기념탑에서 열린 ‘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나주시사·다도면, 환경개선 활동

한국농어촌공사나주시사는 다도면 행정복지센터와 최근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활동’에 나섰다. 나주호 상류 다도면 둘레길 공원 일원에서 이뤄진 이번 활동은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저수지 주변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 임직원과 마을주민 등 총 40여명은 저수지 주변의 버려진 낚시용품,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농촌 환경정화와 경관개선에 힘을 보탰다. 특히 저수지 둘레길을 돌며 방치된 플라스틱 용기, 스티로폼, 고무매트 등 부유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약 1kg량 수거된 폐기물이 다도면 행



정복지센터와의 협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지역과 협업 기반의 환경정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류화열 나주시지사는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민·관 협력의 의미가 있는 환경정화 활동”이라며 “수질 관리 뿐 아니라 나주호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조합원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나주시, 미국 고교생 방문단 초청 국제교류

전남외고·영산고 연계 나주 역사·문화 공유

나주시가 미국 뉴욕 고등학교 방문단을 초청해 시청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학교와 연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과 문화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국 뉴욕 소재 ‘Democracy Prep Endurance High School’과 ‘Democracy Prep Harlem High School’ 학생 방문단을 초청해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영산고등학교와 전남외고 어고등학교가 운영하는 ‘2026학년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교생활과 지역 문화를 직접



나주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국 뉴욕 고등학교 방문단을 초청해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나주시청

체험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3박 4일간 운영됐으며 양교 학생 각 12명이 참여해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학생 방문단이 속한 ‘Democracy

Prep Public Schools’는 2005년 설립된 미국 공립 차터스쿨 네트워크로 학업 성취뿐 아니라 사회참여와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교육 모델로 알려져 있으며 뉴욕을 비롯한 다른 여러 지역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홍보영상을 통해 2000년 나주의 역사와 문화, 에너지 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미래 비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김성관, 전남산림연구원, 불회사 등 주요 관광자원과 나주매, 나주곰탕 등 지역 특산물 소개도 이어지며 큰 관심을 보였다. 행사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강동원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역과 학교가 연계된 국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합원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나주 영강동, 고령층 ‘이불 빨래’ 고민 해결 고향사랑기부금 투입 경로당 내 대형 세탁 시설 구축

나주시 영강동이 거동이 힘든 고령층의 해묵은 과제였던 대형 세탁물 처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투입, 생활밀착형 복지 시스템을 가동했다. 영강동은 최근 택촌 경로당(8동)에 25kg급 대형 세탁기와 건조 장비를 완비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세탁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도입된 설비는 가정에서 처리하기 까다로운 대형 이불을 한 번에 세탁부터 건조까지 마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단순한 시설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행정력과 민간의 협력을 더해진다. 영강동지 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해당 인프라를 기반



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업이 고령층의 위생적인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가구 방문을 통한 정서적 안부 확인 등 다각적인 돌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주=신영식 기자 cult@gjdream.com

한빛원전, 영광 청소년 예술동아리 ‘락뮤’ 후원 디지털믹서 등 7종·공연 환경 개선·역량 강화 기대

한빛원전지력본부가 지역 청소년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나서는 등 의미 있는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빛원전지력본부는 최근 영광군 청소년 예술동아리 ‘락(樂)뮤(MU)’에 악기 및 공연 장비를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증식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연습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빛원전 관계자와 지역 교육 관계자, 지도교사, 학생들이 참석해 지역 사회와 청소년 예술활동의 상생 협력의 지를 다졌다. ‘락뮤’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뮤지컬 동아리로, 노

래와 연기, 무용, 밴드 연주를 결합한 공연을 직접 기획·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 주도의 창작 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엔 기증된 물품은 디지털믹서, 앰프, 베이스기타, 스네어드럼, 베이스앰프, 스테이지 모니터, 멀티이펙터 등 총 7종이다. 밴드 연주와 뮤지컬 공연에 필수적인 장비들로, 향후 연습 환경 개선과 공연 완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락뮤’는 밴드팀과 뮤지컬팀이 협업해 하나의 공연을 완성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예술 역량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빛원전지력본부는 최근 영광군 청소년 예술동아리 ‘락(樂)뮤(MU)’에 악기 및 공연 장비를 기증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빛원전지력본부

행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락뮤는 지역 청소년들의 예술 활동과 공동체 형성을 동시에 이끄는 모범사례”라며 “이번 지원이 학생들의 창작 활동과 공연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한빛원전지력본부 관계자도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게시판

알림 ▲일기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

원 062-369-4009.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클레니지(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2월 26일)

48년생 소송은 합의하며 이사는 가지 마라
60년생 거래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다
72년생 지체 없이 사과하라
84년생 결보기보다 내실을 기해야 한다
96년생 마음먹은 대로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51년생 이별수가 예상된다
63년생 협력자 의견에 따르는 게 좋다
75년생 대면하게 처리하는 것도 근사한 일
87년생 능력은 있는데 바라는 것은 원대하다
99년생 잘 생각해 보면 걸리는 것이 있다
54년생 중요한 거래는 내일로 미뤄라
66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
78년생 부회통하다가 곤란해질 수 있다
90년생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마라
57년생 과감한 판단이 결성을 부른다
69년생 자녀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81년생 뒤돌아 보는 것이 순리다
93년생 주변 사람들이 귀화를 이롭게 한다

49년생 능력을 널리 활용해야 할 것이다
61년생 재난이 일어날 징조가 보이니 조심하라
73년생 쉬운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5년생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놓인다
97년생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처지
52년생 평소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64년생 우연한 계기가 필연으로 연결되겠다
76년생 백만 대군의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88년생 분명한 입장에서 절치대로 이행하라
55년생 다 끝난 일이 다시 불거진다
67년생 우연한 계기가 필연으로 연결되겠다
79년생 뒷사람 충고를 받아들이면 유익하다
91년생 파트너와 불화 있었다
58년생 별문제 없는데 자녀의 반대가 심하다
70년생 아슬하게 행하려거든 아니함만 못 하다
82년생 자금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94년생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때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50년생 성현의 말씀을 따르면 병이 호전된다
62년생 주변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지마라
74년생 이상으로 인한 구설수를 조심하라
86년생 과감하게 시도하라
98년생 친구가 내 호수머니 노리고 있다
53년생 핵심 내용에 부실함이 보인다
65년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자
77년생 상사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중히 답하라
89년생 유지하고 있을 때 효과적이다
56년생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68년생 각별한 사이일수록 꼭 약속을 지켜라
80년생 환경상 변화를 예고하는 시련 터진다
92년생 준수해야 진행에 차질이 없다
59년생 부당한 거래 운이 좋다
71년생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83년생 어려움이 닥치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
95년생 크게 감동 받게 될 것이다